

코로나 차단·자영업자 고통 해소...방역·경제 두 토끼 잡기

광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집합금지 업종 완화 배경

감염경로 미확인 많아 추석 대이동 앞두고 1단계 완화 부담
유흥주점 등 고위험 지정 시설 14종 중 13종 조건부 영업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7일까지 연장하고 집합금지 일부 업종에 대해 완화 조치를 취한 것은 방역은 그대로 유지하되, 경제활동은 장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는 계속해서 금지하면서 제한적 영업 완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1개월여 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자영업자 등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결정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주일 연장 배경=최근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한 이유는 여전히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효과적인 방역 조치로 광주에서는 확산세가 눈에 띄게 줄었지만 전국적으로 감염이 폭넓게 확산하고 있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다. 특히 확진자 중 무증상자가 절반을 넘고 있고, 인구 대이동이 시작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 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기에는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용성 광주시장은 이날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추석을 앞둔 일주일일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감염 고리를 확실하게 차단하

지 않으면 추석 인구 이동과 함께 지역감염이 다시 재확산될 우려가 크다"고 2단계 연장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집합금지 시설 14종 중 13종 집합제한으로 완화=현재 정부 지정 고위험 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시설 등 10종이며, 광주시 지정시설은 종교시설, 목욕탕·사우나, 기원 등 3종이다. 광주시는 여기에 '생활체육 동호회 관련 집단 체육활동'을 포함해 모두 14종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21일부터는 '생활체육 동호회 관련 집단 체육활동'을 제외한 13종 시설은 집합제한 시설로 완화되면서 사실상 영입이 허용됐다.

집합제한 시설 일부는 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부' 운영이다.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목욕탕, 사우나는 오전 1시부터 5시까지 영입이 금지된다. 노래시절을 갖춘 경우 고객 퇴실시 방과 마이크 소독(마이크 커버 교체)을 철저히 하도록 해야 한다.

점바텐즈, 스피닝 등 실내 집단운동은 10인 이상은 집합이 금지된다. 따라서 10인 이내에서 운동이 가능하다. 멀티방·DVD방은 실별 3명 이하로, 판매홍보관, 종교시설, 기원, 키즈카페, 공연장, 영화관, 교육장은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학원, 견본주택, 키즈카페, 실내 체육시설은 50인 이상이 모이지 못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방탄소년단(BTS)으로부터 음악적 성과물과 메시지 등을 담은 '2039년 선물'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험시설, 제한적 영업 허용 배경=집합금지 시설에 대해 '조건부 영업'을 허용한 데는 일상에서 시민들이 겪는 고통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희생이 너무 크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유흥주점과 클럽 등은 지난달 12일 상무지구 유흥업소 발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같은 달 16일부터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사실상 1개월 넘게 영업을 하지 못했다. 단란주점과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등도 지난달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2.5단계) 조치로 인해 1개월여 간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광주시는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방역시스템 내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시장은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희생이 너무 크다는 판단 아래 집합금지 시설을 대폭 축소했지만, 이런 조치가 '이제 안전하다는 방심을 불러 일으킬까' 우려스럽다"며 "여전히 경각심을 갖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최권원 기자 cki@kwangju.co.kr

문 대통령 "공정"은 흔들리지 않는 목표

BTS 참석 청년의 날 기념식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 응원"

문재인 대통령이 방탄소년단(BTS)의 노래와 춤을 모두 알고 좋아하는 팬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BTS의 음악을 실제로 좋아하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이 많아 그대로 대통령에게 질문했다"며 "문 대통령은 '예, 노래와 춤 모두 좋아합니다'라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BTS의 노래를 듣고 춤을 보다 보면 경지에 오른 청년들 같다"며 "아이돌 그룹 음악은 종종 (가사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BTS는 가사가 들려 따라갈 수 있겠다"고 말했다는 게 강 대변인의 설명이다. 이를 두고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 자신이) BTS의 실제 음악 팬이라고 확인해준 셈이다"라고 언급했다.

BTS는 지난 19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날 기념식에 청년대표로 참석,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늘 강하고 대단했다. 방탄소년단이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래의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의 이야기가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데뷔 후 좌절의 순간을 딛고 빌보드 정상에 오르기까지 겪었던 경험을 전

했다. 이와 함께 BTS는 음악적 성과물과 메시지 등을 담은 '2039년 선물'을 문 대통령에 전달했다. 이 선물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보관돼 2039년 20회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공개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다 이루지 못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국민의 삶 전반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해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청년들이 앞장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청년의 눈높이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려면 채용, 교육, 병역, 사회, 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체감되어야 한다"면서 "병역 비리 근절 노력은 물론 부동산 시장 안정, 청년 등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 의지는 단호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불교계 지도자들과 만나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불교계가 법회와 행사를 중단하고 자발적 협조를 이어가는 등 방역을 앞장서 실천해 줬다"며 불교계의 선제적 조치에 대한 감사와 추석 전후 지속적 협조를 요청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집합금지 → 집합제한 13종에 대한 시설별 추가 방역수칙

시설명	추가 방역수칙	공통 방역수칙	
정부지정 고위험 시설 (10종)	①유흥주점 ②콜라텍 ③단란주점 ④감성주점 ⑤헌팅포차 ⑥노래연습장 ⑦실내스탠딩 공연장	▶01시~05시 영업금지 ▶노래 시설을 갖춘 경우 퇴실 시 방, 마이크 소독(마이크 커버 교체)	▶전자출입명부의무화 ▶1일 2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 작성)
	⑧실내집단운동 (격렬한 GX류)	▶10인 이상 집합금지	▶시설 운영 전후 등 1일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⑨뷔페	▶테이블 간 간격유지(최소 1m) ▶공용접기 등 사용 시 비발정갑 사용	▶시설 내 이용자 간 2m (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⑩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4㎡당 1인 및 50인 이상 집합금지 ▶불법(미등록·미신고)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 단란계 집합행위 금지	
우리시 지정시설 (3종)	⑪종교시설	▶4㎡당 1인 및 50인 이상 집합금지 ▶소모임 금지 ▶음식제공 및 섭취 금지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최소 1m) 거리 유지
	⑫목욕탕·사우나	▶01시~05시 영업금지	
	⑬기원	▶50인 이상 집합금지 ▶공용물품(바둑판 등) 주기적 소독 ▶실내출연시설 운영 금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소독제 비치

구례 찾은 이낙연 대표 "섬진강 수해 구명·지원 할 것"

김종인 위원장도 전통시장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9일 구례 수해 현장을 찾아 "이재민 편에 서서 섬진강 수해를 조사하고 지원 방법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전북 남원, 전남 구례, 경남 하동 등 섬진강 범람으로 피해를 당한 지역을 비공식 일정으로 방문했다.

구례 주민들은 이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수해가 발생한 지 42일이 지나도록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국정조사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정부 조사에 대한 여러분의 깊은 불신, 의심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수해 조사를 위해)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 저희에게 판단을 맡겨달라"고 당부했

다. 그는 "우선 현행 제도 아래에서 최대한의 피해 복구를 연구하겠다. 두 번째, 이번 정기 국회 동안 제도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현재 재난재해 지원 제도는 피해 보상이 아니라 복구 지원에 맞춰져 피해에 비해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 특히 사유재산 피해를 어떻게 더 많이 도울 수 있을지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 번째는 보상이다. 보상이 따르려면 법적 판단이 있어야 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다툼이 생긴다"며 "그 문제에 대해 여러분의 편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8일 잇따라 재래시장을 방문했다. 이 대표의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찾았으며, 김 비대위원장은 서울 남대문시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오광록 기자 kroh@

내 삶이 하나 듯...
수목장은 보성 늘푸른입니다.

고객상담센터 062-412-2800

자연이 준 삶 자연으로 돌려주세요

세상이 변하듯 ... 장묘문화는 수목장이 대세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히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보성군 소재
(순천, 화순, 나주, 여수, 광양, 고흥군, 장흥군)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10기 이상 선산도 가능합니다.**